

치 사

色으로 전하고, 法으로 그린다_ 지혜의 빛 展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별기획전인 '지혜의 빛' 전시회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4세기 후반 최초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문화에 중요한 축을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회화·조각·공예·건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의 꽃을 피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불교예술을 창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교미술은 1700여년에 달하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가치가 민족의 문화로 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보존과 계승 속에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도 어느덧 42년의 세월을 간직하였으며, 현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상징이자 최고의 권위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성장과 더불어 불교미술 역시 작가들의 부단한 정진과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교미술 반세기를 정리하고, 나아가 불교미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 가지는 의미와 같이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앞으로도 불교 미술인들의 지혜를 담은 발판이자 큰 마당이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작가 여러분과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운영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31일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